

♥ 여성 상위, 성기능 장애 치료에 효과

초창기 기독교 신앙에서 섹스는 오로지 종족 번식만을 위해 존재했고 여성은 성적인 즐거움을 누릴 자유가 없었다. 여성에게는 남편이 요구할 때 이를 충족시킬 의무만 있었다. 이런 기독교 전통이 오랫동안 내려와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1950년대까지 여동 속에서 남성상위의 체위만 고집했다.

킨제이 보고서에 따르면 1940년대 미국 부부들이 가장 즐기는 체위는 여성상위 16%, 측면위 12%, 후면위 4%였다. 70년대 중반 헛트 보고서를 비롯한 몇몇 연구결과는 3분의 1이 넘는 미국 여성이 여성상위를 즐긴다고 발표했다. 성의 목적은 생식이 아니라 보다 큰 즐거움을 찾는 것이라는 방향으로 인식이 달라지면서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수 천년간 이어진 남성상위 체위가 뒤집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체위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상위 체위에서는 여성이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는 속도와 삽입의 깊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남성은 여성의 유방을 눈으로 보면서 강한 자극을 받을 수 있으며 가슴이나 다른 곳을 애무하는 일도 가능하다.

여성상위는 남성의 조루나 여성 불감증 같은 성기능장애를 치료할 때 가장 바람직한 체위이다. 조루증이 있는 남성은 먼저 여성상위로 훈련을 하고 사정 조절능력이 생기면 측면위와 남성상위로 넘어간다. 여성불감증인 경우에도 남성이 여성의 음핵을 손으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이 체위부터 연습을 한다.

사정 조절능력도 성에 대한 인식이 발전하면서 많이 달라졌다. 킨제이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의 75%가 삽입 후 2분내에 사정을 한다고 했지만 요즘 서양 사람들은 평균 10분 정도를 유지한다.

아직도 킨제이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2~3분 안에 사정을 끝내는 것을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의사가 있다. 그러나 이는 시대와 여성의 기대치를 모르고서 하는 얘기이다. 많은 부부들이 성행위를 정형화된 '공식'처럼 해치워 버린다.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늘 하는 체위로 의무감을 갖고 생리적인 욕구를 배설한다. 밤에 불을

끄고 잠깐 키스한 후 삽입하고 1, 2분 왕복운동을 하다가 그냥 끝낸다. 섹스를 마친 남편은 금세 코를 골며 잠들어 버린다.

여성은 남성이 15분 내지 20분 이상 시간을 끌어 주어야만 오르가즘에 도달한다. 여성이 만족을 못하고 성행위가 끝나 버리면 흥분기에 골반에 충혈됐던 혈액이 해소되지 않아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난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 몇달 몇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많은 여성들이 성욕저하증이나 성기피증에 빠져 '전생의 원수가 부부로 환생한다'는 속설을 위안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여성 상위 / 킨제이 보고서

♥ 킨제이 보고서

1948년, 10년간의 연구 결과를 엮어 만든 『남성의 성적 행동』이라는 책이 출판되었을 때, 보수적인 미국인들과 학자들은 분노와 충격을 받았다. 하버드에서 학위를 받은 동물분류학자 알프레드 킨제이는 하룻밤 사이에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1만 7천 회 이상 일대일 면담을 하여 만든 이 책은 온갖 도표로 이루어진 딱딱한 통계에 불과하였지만 25만 부 이상 출판되었고 12개국 이상에서 번역되었다. 5년 후인 1953년에 발표된 『여성의 성적 행동』은 훨씬 더 자세한 연구서였지만 의회와 언론으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록펠러 연구재단에서는 연구비 지원마저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언론과 싸우면서 연구비를 다시 받아 내려고 노력하던 킨제이는 그로부터 2년 후, 과로로 사망했다.

출간된 지 이미 50년이 다 되어 가지만 『킨제이 보고서』는 아직도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가장 정확한 성보고서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책에 수록된 내용은 혼외정사, 동성애, 자위, 매춘 등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제시해 놓은 것으로, 당시까지 거의 금기시 해 오던 주제였다.


1940년대의 보수적인 미국 사회에서는 여성이 성에 대해 흥미를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성은 단지 생식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지 즐거움이나 기쁨의 대상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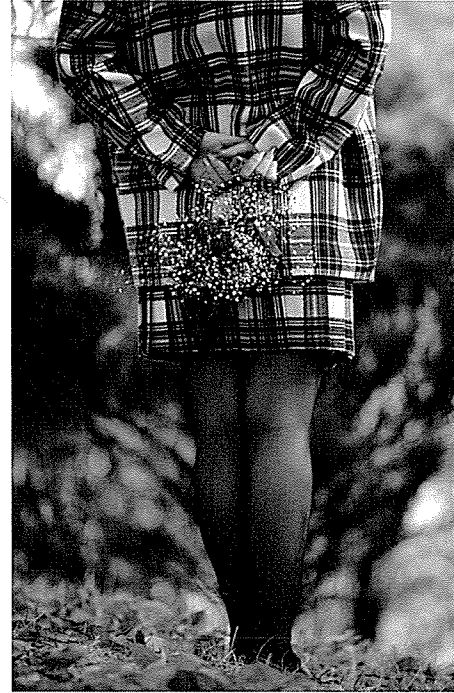
그러나 놀랍게도 『킨제이 보고서』의 내용은 여성들이 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반 이상의 미국 여성이 결혼할 당시에 처녀가 아니었고, 더구나 4분의 1이나 되는 가정주부들이 혼외정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37%의 남성(여성은 19%)은 사춘기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한 번은 오르가즘을 느끼는 동성연애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 후 40여 년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진행된 성해방으로 여성의 자위 빈도라든지 혼외정사의 빈도가 급격히 올라간 것이 변화라면 변화이다. 사정조절 능력에 대한 기술도 성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면서 많이 달라졌다.

1940년대의 킨제이 조사 때만 하여도 결혼한 부부의 4분의 3이 삽입 후 2분 안에 사정을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는 보통의 서구인이 평균 10분 정도를 간다.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기술이 급격하게 변하였다는 뜻이다.

『킨제이 보고서』는 통계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하지만 그 동안 발표되었던 『레드북 보고서』, 『하이테 보고서』, 『제너스 보고서』, 그리고 2년 전 시카고 대학팀이 발표하여 "킨제이 보고서를 능가하는 전국적인 보고서"라는 타임즈의 찬사를 받은 『미국인의 성 (Sex in America)』이라는 보고서도 그렇게 정확한 보고서는 아니었다. 



〈편집자 주 : 이 원고는 설현욱 박사의 인터넷 사이트(<http://www.sex-academy.com>)에 게재된 원고를 필자의 동의 하에 실게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02-512-1101)〉